

'민식이법' 가해차량 보험사 90% 배상책임

보험사 "차량 사이로 뛰어 나와 배상책임 80%" 주장 "보험사는 유족에 5억700여만 원 지급하라" 판결

법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주장하는 80%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 보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이번 재판에서 "고인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 나와 발생한 것으로 보험사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고 가해자는 지난 4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사와 양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신봉우기자

순천경찰 농산물 절도예방 위한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소장 김광원)는 지난 11. 3.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심야 자연부락 및 아파트 밀집지역 일대 취약지 합동 방범순찰을 실시했다.

수확기 농축산물 절도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전단지 등 배부, 교통사고 및 금용기관 주변 일대 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 이번 순찰은, 파출소에서 자체 구입한 방범조끼, 손전등 등 각종 장비 전달식이 있었다.

김광원 파출소장은 "지역치안은 부단한 협력지원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와의 합동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외국선적 화물선 급성맹장의심환자 긴급 이송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2일 이른 아침 화흥포 남쪽에서 항해하던 선박에서 심한복통을 호소하는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늘 2일 아침 6시 20분경 완도군 화흥포 남쪽 5km 해상, 인천에서 일본 나고야 항으로 항해 중이던 B선박(2,509톤, 화물선, 파나마국적) 선장 A씨(남, 71세,부산거주)가 심한복통을 호소하며 완도해경 상황실로 신고접수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을 급파, 현장에 도착하여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후 B선박에 계류 심한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경비정에 편승, 응급의료시스템 가동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해경전용부두로 입항 119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하였다.

현재 A씨는 완도소재 병원에서 치료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식약청, 11월 한 달간 '화장품 과대광고'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약청이 화장품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광주지방식약청 오는 11월 한 달간 화장품 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올해 하반기 신규로 등록했거나 지난 2년간 광고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관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38개 업체가 대상이다.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비롯해 수입(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판매자 등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광주청은 업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천연·기능성 표방, 기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된 '화장비누' 책임판매업체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교육을 통한 계도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지방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식을 높이고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주단속현장서 줄행랑치다 순찰차 '꽂' 30대 집유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다 경찰 순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양림동까지 5km가량 차를 몰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도주 중인 자신의 승용차 진로를 차단하던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 소수자 때리고 자해 시킨 20대 2명 집행유예 선고

'금연 약속 안 지켰다' 집단폭행...눈썹 칼 건네 자해 시켜

성 소수자 카페에서 만난 또래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때리고 자해를 시킨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여)·B(26·여)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순께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씨가 '담배를 피우고 과자를 주워 먹는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광주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 5차례 밀치고, 발로 옆구리·다리를

여러 차례 걸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하순께 C씨에게 '담배를 끊지 않았으니 자해를 하라'고 협박, 눈썹 칼을 건네 자해를 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성 소수자인 C씨가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 C씨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강압적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

최이슬기자

일상 상습 행패 부린 '전남 길거리 폭력배' 474명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특별단속 22명 구속...재범률 높고 중년층 많아

일상생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이른바 '길거리 폭력배'가 무더기로 전남경찰청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달 동안 생활 주변 폭력배 특별 단속을 벌여 474명을 붙잡아 이중 2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

혔다.

범죄 유형은 만취 상태에서 영세상인·주민 등을 상대로 부당한 유행력을 행사하는 전형적 사례가 많았다.

폭행·상해 62.8%, 업무방해·재물손괴 14.2%, 협박 6.5%, 무전취식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습성이 특성인 생활 주변 폭력배는 '전과 6범 이상'이 39.2%(186명)에 달했다. '1범~5범'이 32.5%(154명), '전과 없음'은 28.3%(134명)로 집계됐다.

범죄자 연령대는 중년층이 주를 이뤘다. 40대(28.7%), 50대(25.1%), 60대 이상(20.9%), 30대(12.6%) 순이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단속 기간 경찰서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 생활 주변

폭력배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했다.

종합적·입체적인 수사로 엄정한 사법 처리에도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취 폭력 등으로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며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